



나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말레 팔라, 말레이시아에 취하다.  
12월편, 시간이 빨리가

나  
시  
고  
랭  
5.50

로  
티  
볶  
1.20

바  
우  
테  
30.55

스  
윗  
p  
o  
r  
k  
20.00

나  
시  
르  
막  
6.00

원  
탄  
미  
7.80

12월 영업 일정  
차림표\_전체 스케줄 달력

1.베다니 캠프

2.SCC프로그램

3.Feed the Poor Progame

4. 볼링대회 및 장애우의 날 행사

5.연말 파티

6. 2012년 1월 계획

# 12월 영업 일정

나  
시  
고  
랭  
5.50

로  
리  
봄  
1.20

골  
뱅  
이  
30.55

홍  
합  
탕  
20.00

나  
시  
르  
막  
6.00

완  
란  
미  
7.80

차림표\_전체 스케줄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Bethany Camp		
4	5	6 Home stay - 이삿날	7	8 휴	9 가	10
11 휴	12 가	13	14 Scc & YWCA party	15	16	17 SCC
18 볼링 대 회	19	20 장애인의 날 - Hari OKU	21 SCC	22	23	24 SCC
25	26	27	28 SCC	29	30	31 Scc & BB 파티

# 1. 영원의 기억하고 싶은 “베다니 캠프”

## 베다니 캠프

베다니 홈에서는 아이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평범한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지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해마다 4-6번의 캠프가 진행된다. 우리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동안 LUMUT에서 진행된 베다니 홈 캠프에 참여했다. 캠프 참여를 위해 하루 전에 베다니 홈으로 이동했다. 베다니 홈을 떠난 지 약 보름만이었다.

희정: 베다니를 떠날 때, 이제 막 나에게 먼저 다가와 웃어주고 손 잡아주고 함께 놀던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참 아쉬웠지만 캠프가 남아있다면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그렇게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된 베다니 캠프에서 나는 참으로 소중한 감사한 선물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선물 하나는, 나의 파트너였던 응 준킷이었다. 준킷은 16살의 베다니 홈 라이트 하우스의 학생인데, 아직도 나는 그 아이가 어떤 부분이 special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 라이트 하우스는 독립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이 모여 간단한 일들을 하고 급여를 받는 시스템의 베다니홈의 직업학교이다. 그 곳에서 준킷은 이들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한다고 한다. 준킷은 말레이어를 하지 못하는 나에게 통역을 해주고, 사과를 나눠주고, 버섯 스프를 함께 먹자고 가져다주고, 양말을 빌려주고, 등산을 할 때 나를 돌봐주고! 한국 노래라며 Nobody를 틀어주고, 예쁜 조개 껍질을 주워다 줬다. 심지어 바다에서 놀고 난 뒤에 모래를 씻지 않는다고 혼나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냥 베다니 캠프 동안 준킷이 나를 돌봐주었다...4일 동안 준킷의 친구이자 엄마(이려고 노력은 했음.)이자 동생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또 캠프의 활동들이었던 레프팅, 암벽타기, 모래성 쌓기, 뗏목 만들기 등을 하면서, 아이가 하고 싶은 만큼을 못 따라주는 엄마의 마음은 참으로 슬프고 속상하겠다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다. 준킷은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자신감에 차서 제일 먼저 하고 싶어하고 가장 많이 하고 싶어하는데...그만큼의 기회를 내가 챙겨주지 못하거나 받쳐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니 참으로 내가 작아지더라는. 못한 나를 아껴줘서 고마워 준킷!

선물 둘은, 베다니 홈 교장(?)인 제이싱님의 special children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이야기였다. 봉사자들은 모두 모여 그의 지난 19년 동안의 경험담과 이 캠프가 아이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이야기했다. 또, 예상치 못하게 태어난 장애 아이를 맞은 가족의 기분과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들과 스트레스와 받아드리는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지난 두 달 동안은 아이들만 생각해 보았는데, 그 가족들이 자신의 특별한 가족을 받아들이고 보살피는 데 드는 에너지와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지 못했었다. 마침, 베다니 최고의 장난꾸러기인 JAVIS의 어머니가 함께 캠프에 참가하셨는데,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와 어머니와의 만남은 한층 더 special children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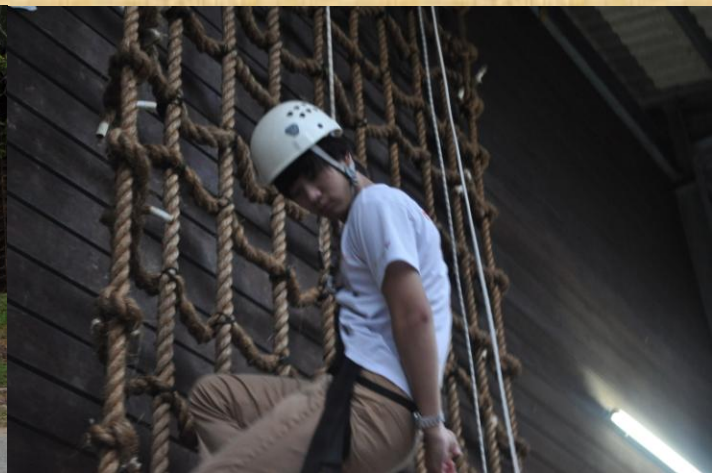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선물 셋은, 일본의 국가봉사자들인 JICA 봉사자들을 만난 기회이다. 그들은 베다니에서 봉사하고 있는 JICA 봉사자인 마스미의 친구들로 함께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의 각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었다. 파트너가 지어진 캠프라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주는 사실 없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 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캠프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열정은 굳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옆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다. 마음을 다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배우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베다니 캠프에서 난 정말 값진 것들을 얻었는데, 이제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데 베다니와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 그러나, 나의 특별한 친구와의 인연은 어디에서든지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가르침들을 준 캠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 1. 영원의 기억하고 싶은 “베다니 캠프”

은지: 베다니 홈에 있을 때는 빨리 떠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다. 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아이들 한 명 한 명, 베다니 홈 곳곳이 그리웠다. 알게 모르게 든 ‘정’이라는 농의 힘이였다. 그래서인지 캠프를 위해 베다니 홈으로 가는 길이 즐겁기만 했다. 그리고 3박 4일의 캠프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 짝꿍이 된 Weiwei는 나보다 나이가 한 참 많은 언니였다.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것을 좋아해서... 가방도 무려 3개나 가져오는 바람에 이동할 때... 정말 쉽지 않았다. 겁은 또 되게 많아서 활동 하나하나를 모두 힘겹게 해냈다.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과 짝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런 현실들과 맞물려 살갑게 굴지도 못했다. 그런데... 캠프 마지막 밤에 선생님들이 게임에 참여하고픈 언니를 무시하자 화가 났다. 참... 인간의 마음이란 --;; 덕분에 헤어지는 순간엔 아쉽고 미안하기까지 했다. 언니가 우는 바람에 더 슬펐다. 그렇게 베다니 홈과의 잠깐의 이별은... 또 슬퍼졌다.

범진: 캠프를 위해 다시 베다니에 돌아왔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했다. 내 기억 속 정겨운 풍경은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반겨주었고, 베다니의 사람들은 다시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다. 캠프기간동안 파트너가 된 Gopal! 베다니에서 활동했을 때 같이 축구교실을 했던 친구라 어색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늘 정해진 일상과 좁은 공간에만 갇혀있던 아이들이 캠프기간동안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시작한 베다니의 캠프..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활동하는 모습과 내가 모르고 있었던 아이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서 놀라웠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3박4일간의 여정이 정신없이 흘러가 또 다시 이별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는 정말 아쉬움이 남았다.





속정: 베다니 흠을 떠나기 3일전에 했던 제이싱과의 인터뷰가 인상 깊게 남아 있었다. 그의 교육 철학과 원칙이 참 좋아보였고 그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베다니 캠프는 그런 그의, 베다니가 지향하는 그 목표에 맞게 진행된 캠프였다. 확실히 나에게 따분하고 재미없었던 그리고 가식적이며 느껴졌던 베다니에서의 일들이 캠프 기간동안에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변했고 나 역시 그것을 즐겼다고 생각한다. 베다니 캠프 동안 작지만 설레는 일도 있었고 파트너인 ming과 조셉과 같은 친구를 만난 것도 큰 즐거움 이었다. 사람과 어울리다보니 캠프기간이 금방 지나갔고 베다니 흠을 떠날 때 느끼지 못했던 아쉬움과 후회도 느끼게 되었다. 나로서는 어쩌면 베다니 흠에 더 오래 있었다면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겨준 캠프였다.



승현: 잠시 헤어졌던 아이들을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웠고 아이들도 잊지 않고 반겨 주었다. 캠프를 떠나기 전날 베다니 흠에 가 있어서 잠시 우리 팀이 한달 반 동안 지내던 그룹 흠에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룹 흠에 아이들은 없었지만, 그룹 흠은 여전히 우리가 떠나기 전 그대로 있었다. 대문이 잠겨 있었지만 은지 단원이 망을 보고 내가 담을 넘어 그룹 흠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 나는 바로 내가 그동안 가꾸었던 텃밭에 가 보았다. 떠나기 전, 오이가 몇 개 열지도 않았고 작았던 것이 내가 없던 10일 사이에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옥수수들도 여물어 가고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베다니 캠프는 너무 즐거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내 파트너 치밍! 치밍! 이름을 외치며 불레! 불레! 3박 4일 캠프동안 가장 기억이 남는 건 마지막 파티 때 마이클 잭슨 만났다는 것, 다 아시죠? 베트니의 마이클 잭슨

## 2.SCC 프로그램

### SCC프로그램

SCC는 SENIOR CITIZEN CLUB의 준말로 어르신들의 모임이다. 매주 할머니와 할아버지들(그러나, 그분들은 이모 삼촌...이고 싶어하셨다.) 이 정기적으로 홀에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춤도 추는 모임이다. 우리팀은 14일에 첫 방문을 하여, 17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총 5차례로 나누어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 첫 프로그램 - 탈춤 블루스

SCC 에서는 아주 쉽고 간단한 춤과 프로그램을 원했다. 그래서 현지에 오기 전, 우리는 국내 훈련 시기에 배운 탈춤 블루스가 쉽고 간단하다고 판단하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 두 번째 프로그램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탈춤 블루스의 원형인 우리나라 탈춤에 대해서 ppt를 띄워서 보여주며, 여러 종류의 탈의 이름과 역사를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퀴즈를 내어서 맞힌 분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지의 문화와 동지 팔죽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 세 번째 프로그램.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이날 아이린이 준비해 준 크리스마스 애니메이션을 보여 드렸다. 더불어 여러 분들이 우리나라의 노래 아리랑에 배우고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기 아리랑을 다같이 배우며 불러 보는 시간을 가졌다.

### 네 번째 프로그램 - 친환경 농약 만들기 프로그램

SCC클럽의 여러 할머니들이 집안에 화초를 많이 꾸미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 농약 두 가지 방법을 알려 들었다. 한 가지는 계란을 이용한 방법과 또 한 가지는 마요네즈를 이용한 방법이었다. 곽승현 단원이 농약 만드는 방법을 시연하면 나희정 단원이 영어로 말해주고, 또 아이린이 중국어로 설명해 주면서 진행을 되었다.







### 다섯 번째 프로그램

우리나라 음식을 먹고, 한복을 입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한국음식으로 설날과 관련하여 '떡국'을 준비하려 했으나, 일회용품 이용 등의 이유로 궁중음식인 떡꼬치를 준비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르신들 중 일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소고기를 먹지 못하였다. 불교를 믿는 분들은 소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점을 미리 숙지하고 가지못한 점을 반성한다. 다음으로 한복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한복입기를 진행 하였다. 의외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의 반응이 좋았다. 즐겁게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부채춤을 보여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 이었다.



승현: scc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할머니, 할아버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지: SCC 소속 어르신들은 소년소녀 같으시다. 그래서인지 낯선 이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것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으셨고, 우리가 소개하는 낯선 그러나 익숙한 한국을 너무나 궁금해 하셨다. 한 회에 30분이라는 시간밖에 함께 하지 않으셨지만, 서투른 우리의 진행에 언제나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범진: 처음 SCC와 만났을 때 나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밝게 웃으시며 춤도 추고 얘기 나누는 모습에 깊은 인상이 남았었다. 5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흡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즐겁게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희정: 인터넷에서 춤을 보고 연습해서 서로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참 멋져보였다. 여러 춤을 연속해서 계속 추시는데, 몸치인 내가 혼자서 허우적 대고 있으니 할머니 분들께서 다가와 원투스리를 보여주시며 스텝을 알려주셨다. 할머니의 손은 참 따뜻하더라!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가져주시고 우리의 미숙한 프로그램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다.

숙정: scc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린에게 이곳에 중국계 어르신들 밖에 없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었다. 이유는 이렇게 노년을 즐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중국계 어르신들 밖에 없다는 것인데, 말레이는 종교적 이유로 인도계는 경제적 이유로 참가하지 못한다고 한다. YMCA가 기독교 단체라는 인식이 퍼져 회원 대다수가 중국계인 이유도 한 몫하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두어 번 정도 빠져서 팀원들에게도 미안하고 어르신들과 더 많이 나누고 오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 프로그램 역시 나 에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경계를 허문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다.

# 3. Feed the Poor Programme

## · Feed the Poor Programme(사진촬영 금지)

매주 토요일 YMCA 입구에서는 저소득층과 외국인 노동자, 장애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이 활동에 24일부터 참여 하게 되었다.

승현: 처음 시작하는 날.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정신 없이 그릇을 나르고, 치우고 그렇게 두 시간 동안 많은 땀을 흘리며 몸은 힘들었지만 KL에 와서 가장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은지: 누군가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은 몇 번 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준 것은 처음이었다. 덥고, 모두들 요구사항이 다 달라서 힘들기도 했지만, 맛있게 먹고 나가시며 ‘고맙다’는 그 한 마디가 가슴에 꼭 박혔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ㅜㅜ 몇 번 안 되지만, 남은 날은 더 웃으며 열심히 해야지.. 다짐했다.

범진: 그 동안 YMCA를 수업이 들락날락 하면서도 매주 토요일 바로 옆에서 하던 이 행사를 나는 미처 알지 못했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했었는데.... 여튼!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해 어땀땀 하며 일을 하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희정: 처음, 봉사라는 것을 떠올리면 흔히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무료 배식 행사가 아닐까. 이 곳은 교회와 약물중독 치료 센터에서 함께 힘을 모아 매주 가난한 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한다. 약물에 중독되었다 치료를 마친 이들이 와서 배식을 돕는 모습이 괜히 짠했다. 또 시각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길 가다 가끔 본 분들도 있었다. 아마 근처에 시각 장애인 관련 시설이 많아서 인가보다. 그 분들을 안내해드리는 일은 또 새로웠다. 어떻게 안내해 드려야 하는지도 배웠다.

생각만큼 극도로 어려워 보이는 분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맛있게 드시고 고맙다고 해주시니 간만에 보람을 느꼈다. 진작 이 일을 시작할 생각을 왜 못했나 모르겠다.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매주 찾아 마음을 계속 나눠야겠다.

숙정 : 이 프로그램의 배경설명을 들으면서 무빙스쿨 때 찾아갔던 ‘문턱 없는 밥상’집이 생각이 났다. 먹을거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시니 당연히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다. Y 주변에 장애인 센터가 많다 보니 시각 장애우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 어르신들과 인도계 사람들도 있고, 말레이계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 한 패도 자주 오는 것 같다. 크리스마스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줄 예정 이었으면서도 굳이 추천을 해서 선물 받으시는 분 한분 한분이 즐거워하게 만들어주는 마음 씀이 참 좋아 보였다. 몸이 피곤한 활동 같은 것이 얼마나 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은 단순하게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더라도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 4. 볼링대회 및 장애우의 날 행사

### KL DEAF CLUB 볼링대회

18일 오후 2시 KL YMCA 데프 클럽에서 볼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우리 팀은 두 팀으로 나누어 참가 하게 되었다.

승현: 데프들과 함께한 볼링 대회. 희정이와 은지랑 나 이렇게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치렀다. 총 3게임. 첫 게임에 뒤쳐졌지만, 남은 2게임에 열심히 하여 결국은 종합 7위. 아~~전날에 볼링장에서 연습을 했지만 공은 핀을 피해 갔다. 근데 응지응지가(응지응지: 은지 단원을 가리키는 애칭) 볼링을 잘해서 끌지는 면했다.

은지: 난 태어나서 여태까지 단 한번도 볼링을 쳐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볼링대회라니!! 그나마도 대회 몇 일전, 스텝 친구 함께 쳐 본 게 처음이었다. 대회에서 치는 볼링은 내 24년을 통틀어 겨우 2번째 해보는 게임이었다. 룰도 제대로 몰랐기에 끌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대회에 임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보다 잘 된다. 타고난 운동신경?!... 따위는 없는데... 어째든 우리 팀은 전체 10개 팀 중 7등, 나는 30명 중 20등을 했다. 우와우와~~

희정: 나는 몰랐다. 내가 볼링을 못 치는지. 사실 볼링을 제대로 쳐 본적도 없긴 하지만... .나로 인하여 우리 팀이 상을 못 땀다면 미안. 하지만 즐거웠으니 뭐 허허허허. 오랜만에 deaf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좋지 않은 또는 불필요한 말들을 듣지 않아서 인지, deaf 친구들의 얼굴은 미소가 어려웠다.

숙정: 잘 해보려고 스스로 볼링을 잘 친다고 주장하던 범진 오빠, 에스더와 겨우겨우 팀이 되었는데 우리 팀의 구멍은 바로 나왔다. 팀 이름도 super durian으로 상 받을 때 호명되면 참 재밌겠다~ 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 즐거워하며 대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나의 민폐력 발동으로 30명중에 30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다. 어디 숨을 데도 없고 해서 앞으로 볼링에 대한 기억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느낀 건 데프들은 다 잘생기고 예쁜데 운동도 겁나 잘한다는 거다. 메롱.

범진: 대회일정에 앞서 연습을 위해 오랜만에 볼링장을 찾았을 때 볼이 이리저리 빠지는 모습에 열심히만 하자! 라는 각오로 시작했었다. 경기를 하다 보니 승부욕이 생겨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지만... 다른 팀들이 너무 잘해서 아쉽게 상은 타지 못했다. 하지만, 즐겁게 볼링도 치고! 오랜만에 deaf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 장애인의 날 (Hari OKU)

Hari OKU.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날'이랑 같은 개념의 날이다. 12월 20일. YMCA 마당에는 캐노피와 무대가 마련되었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 풍선을 붙이고, PMY친구들을 돌보았다. 장관이라는 높으신 분들과 가수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인근의 장애인 학교 학생들과 여러 장애우들이 함께 했다.

승현: 수 많은 단체와 스페셜 칠드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침 일찍 ymca로 속속 도착 했다. 아이들은 너무나 귀엽고 활발해서 같이 노는데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잔디밭에서 여러 게임을 했는데, 새로운 게임을 많이 보고 옆에서 진행을 도우면서 앞으로 PMY아이들의 게임 프로그램에 응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지: PMY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무슨 날이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쏟았다. 함께 한 아이들은 자신이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와 부모님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로 누구보다 씩씩한 친구들이었다. 오전 나절 잠시지만, 같이 밥 먹고 뛰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범진: 말레이시아에서는 Hari OKU와 같은 행사가 참 많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만들고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모습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날 PMY아이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함께할 귀여운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다. 아이들 모두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의 만남이 기대된다.

희정 : 장애인의날에 온 special children과 함께 게임을 했다. 으악. 베다니 홈 아이들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만나는 나의 특별한 친구들이어서 인지, 너무나 반갑더라는. 그리고, 새삼 느끼는 거지만, deaf인 부모님들이 자신의 (들을 수 있는) 아이들과 수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참 멋있다고 생각했다. 너무 너무 또랑또랑하게 아빠를 쳐다보며 천천히 수화를 하고 있는 아이가 참 의젓했다.

숙정: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뿌듯하고 알찼던 하루였다.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건 분명 내가 좋아서 일거라고 믿는다. 아이들이랑 게임하는 그 잠깐 동안 뛰어다녔다고 피곤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날아갈 듯 뛰어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PMY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런데 이 행사는 도통 누굴 위한 행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분명 특별한 친구들을 위한 날 일텐데 행사 관계자들의 관심과 배려는 높으신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내가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는 곳에는 팬마저 망가져서 다들 사우나를 경험하고 있는데 사람을 얼려버릴 듯한 많은 팬과 물분사기는 분명 나에게 씬쓸함을 남겨주는 것이 있었다. 함께 사진을 찍고 공연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친구들을 위한 무언가 약속을 해주고 가는 것일까? 아이들이 앵그리 버드 학용품에 기뻐하는 모습은 분명 좋은 것 일 테지만 한 구석에서는 팔리지 않는 종이가방을 두고 멍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기다리는 모습은 분명 나에게겐 모순으로 보였다.



# 5.연말 파티

## (1) YWCA 파티

승현: 서로 의지해 가면서 돕고 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았다. 같이 만나서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게임도 하고, 연세가 많지만 내가 본 그 분들의 모습은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젊어 보였다.

은지: 말레이시아에 와서 참 많은 하는 생각은 ‘멋지게 늙는다는 것’이다. SCC에서 만난 어르신들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고, 이번에 YWCA에서 만난 어머니들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다. 게임 하나하나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며 웃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멋있어용!!

범진: YWCA어머니들이 손수 만드신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같이 노래 부르고 게임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지만 살갑게 대해 주셔서 감사했다. 다음에 한번 더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희정 : 이번 파티로 인해, YMCA가 young man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YWCA가 상대적으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다.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더 넓은 기회를 찾아가고 있다니, 왜 굳이 여성을 위한 센터를 따로 만든 거지 하는 불만이 생기다가도 그게 현실이라면 감사한 단체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숙정 : 이 날 경품에 당첨되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이 생각난다. 옆 자리에 앉아계신 어머님과 나란히 커피와 음료수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서로 이것 때문에 마음이 통한 것 같았다. ㅋㅋ.. SCC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어르신들을 뵈는 것에 조금씩 벽이 사라지는 것 같다. 아이린은 그 분들이 아이 같다고만 하지만 순수하시면서도 활동하는 그 전반에 느껴지는 활기가 더욱 부럽게 느껴졌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소외감을 느끼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SCC나 YWCA활동의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2) RUMAH HOPE 고아원 크리스마스 파티

12월 11일 휴가 기간 베트니홍 선생님의 리비타와 범진단원 그리고 승현단원과 함께 RUMAH HOPE 고아원 크리스마스 파티에 다녀왔다. 그곳에는 리비타의 친구가 일하고 있었다. 그곳의 아이들은 유.아동부터 18세 까지 대략 60명의 아이들이 보이홍, 결혼으로 하우스를 분리 하여 지내고 있었으며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아침 10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동안 크리스마스 파티를 도우면서 많은 아이들과 친해 질 수 있었으며 최근 아이들이 “꽃보다 남자” 라는 한국 드라마가 보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저녁 7시 크리스마스 파티는 짧은 기도로 시작하여 아이들이 그 동안 준비한 노래와 율동, 퍼포먼스와 함께 즐거운 게임도 같이 하였다. 우리는 선생님들의 도와 게임진행을 도와 주었으며 파티가 끝나고 맛있는 저녁식사를 먹고 아이들과 아쉬움의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 오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이곳 고아원도 계획에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3) YOUTH CLUB 파티

승현: 유스파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거라고 예상했지만 최정예 소수 인원으로 재미 있게 놀았던 것 같다. 하지만 게임 중간에 별칙으로 먹는 와사비 샌드위치는 너무 싫었다. 그들이 한 해동안 지내온 것을 영상으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글로 쓸라니깐 머라고 적어야 할지. 그들이 마냥 어린 나이로 보이지는 않았다. 좋은 리더, 좋은 어른이 될거라는 생각.

은지: YOUTH CLUB이 처음으로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되어 함께 했다. 처음은 원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다. 우왕좌왕 하는 감도 없잖아 있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았다. 음.... 다음에는 고추냉이보다는 겨자가 어떨까하는 생각과 밥을 좀 일찍 먹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째든 즐거운 파티~!!

범진: 오랜만에 젊은!? 친구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이었다.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들과 별칙으로 주어진 소금 샌드위치... 잊지 못할 것 같다. Youth club 과는 함께 시간을 보낼 일이 없어서 얼굴만 아는 사이였음에도 파티에 초대해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희정: 나는 youth가 아니었나보다. 내가 가장 참가자 중 연장자였다. 아이들의 뽀송뽀송한 얼굴을 보다가 거울을 보니 내가 참으로 늙었더라는...으악!!! 그러나 스스로 이런 파티를 기획하고 모여서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여 멋졌다. 이번 해부터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이런저런 파티와 활동들을 만들어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 멋졌다.

숙정: 구미 간사님들의 페이스북을 보면 청소년들이 Y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가끔 훑쳐 볼 때가 있다.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참 배우는 게 많겠다, 부럽다, 대견하네.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었는데 이 곳 역시 주제는 다르더라도 청소년들이 참 건전하게 잘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이 파티! 어떤 게임을 할 때마다 무조건 이기려고 들던 내 모습이 이들 사이에선 조금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참 도란도란하게 지내는 것이 느껴졌다. 이곳의 유스 클럽은 총 30명 내외로 함께 일본 지진 피해 모금 캠페인도 진행하고 마음 수련하는 캠프도 함께 다닌다고 한다. 그 두 명의 리더 친구들이 주는 밝은 기운을 받아 새해엔 더 힘내서 살아야겠다.





#### (4) 아이린과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

크리스마스이브에 우리 숙소에서 아이린과 마틴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아이린은 파티를 위해 오리요리와 로작, 알코올 없는 샴페인 2병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자와 라면을 준비해 왔다. 우리는 은지가 미역국과 샐러드. 계란말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준비하여 1부 저녁식사와 2부 케이크와 알코올 없는 샴페인을 먹었다.

승현: 24일 일정이 오전 오후로 있어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아이린이 항상 우리를 챙겨 주어서 미안하고 항상 고마워요 .

은지: 아이린이 처음에 파티를 제안했을 때,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크리스마스 파티라 걱정부터 앞섰다. 그래서... 준비한 음식은 그저 한국에서 먹던 반찬들이었다. 그 작은 것에 아이린은 감동하고 즐거워했고, 우리는 맛있는 파티를 즐겼다. 크리스마스이브, 항상 우리를 생각해주시는 그녀의 마음에 다시금 감사한 하루였다.

범진: 크리스마스이브! 그 동안 한국에서도 해본 적 없었던 크리스마스 파티였지만 우리와 함께 이 날을 보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준 아이린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얘기들은 우리의 시간을 즐겁고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희정 :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냥 연인과의 데이트 혹은 연인이 없어 외로운 날 정도의 인식이었는데, 말레이시아에 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렇게 정식으로 여러번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우리의 코디네이터 아이린 님과 그의 연인 마틴 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리스마스음식들과 중국의 음식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한국의 음식들을 서로 나누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고마워요 아이린!

숙정 : 이 날 먹었던 음식들에다가 번호를 매겨봤다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다시 먹고 싶다. 마틴 아저씨가 이것저것 북한과 통일에 대해 물어보시고 의견을 나누던 중에 서로 조금씩 과열된 모습을 보였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정치’에 관해 현지인과 길게 이야기 나누어 보기도 처음 인 것 같다. 항상 고마운 아이린 덕분에 아직도 우리 냉장고는 짝 차 있다.^^



## (5) BB 보이즈 파티

BB(boy's bridge)는 연령대 별로 12세 이하 주니어와 그 이상 시니어로 나누어 리더십을 키우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단체이다. 이곳에 우리는 1월 달에 주니어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2011년 12월 마지막 31일에 하는 BB파티에 초대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 준비한 소녀시대 gee 댄스 퍼포먼스를 하고 우리에게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승현: 처음 이 파티를 가기 전 어린 아이들과 2011년의 마지막을 같이 보낸다는 생각에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러가지 게임에 너무나 재미있었다. 특히 풍선 터트리기 게임을 하면서 숨차하는 내 자신을 보고 체력을 많이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1년을 너무 빠르게 지나온 것 같다. 아쉽다.

은지: 말레이시아에 와서 가장 많은 '남자'들과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직접 파티를 준비하고, 운영했다. 연령대가 다양한데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것 같았다. 음식도 너무 맛있고, 게임도 너무 즐거웠고, 퍼포먼스들도 너무 멋졌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파티가 끝나고 서 부킷빈탕에 가서 새해맞이 카운트를 함께 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것 같다.

범진: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나는 참 많은 파티와 축제들을 경험해보는 것 같다. 이번 BB파티도 굉장히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다. 처음 파티에 초대 받으면서 우리에게 퍼포먼스를 준비해 달라고 했었을 때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춤이라고는 그 동안 연습했었던 소녀시대의 GEE 밖에 없었는데, 이 춤을 시커먼 남자아이들 앞에서 춰야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긴장하고 춤을 추었다. 많은 실수를 했었지만 말팀의 예쁜 3명의 팀원들 덕분에 굉장히 큰 환호성과 박수를 받아서 마지막엔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게임들도 함께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또 새해를 함께 맞이한 BB아이들에게 감사한다.

희정 : 이제야, 보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알았다. 전통이 있는 단체인 만큼 체계적으로 행사를 열심히 준비한 게 보였다. 올해 중학교를 마친 16살 아이들이 주도하여 준비한 파티라는 게 놀라웠다. 또 그들은 서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어린 junior 소년들을 챙겨주며 함께 커가고 있었다.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런 파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애들아!!! :)

숙정 : 사실 이전 유스 파티에서 조금 어수룩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파티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웬걸!! 정말 파티에 다녀왔다. 파티 내내 흥이 나서 나 스스로를 멈출(?) 수가 없었다. ㅋㅋ 함께 게임을 하는 동안 그 곳에서 가장 연장자인 우리들은 가장 많은 배려를 받았다. 함께 말레이시아의 명동 같은 부킷빈탕에서 함께 카운트다운도 하고.. 이 나라 젊은이들이 눈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루 종일 정말 신나~~





# 2012년 1월 계획

PRE-SCHOOL

BB-Junior 교육

Wisma Harapan

텃밭 만들기

RUMAH HOPE 고아원 ?

Feed the Poor Progame

목,토요일 참여 확대

벌써 1월달 보고서는 심플하게 ㅋㅋ

HAPPY NEW YEAR

말레이시아 라온아띠 애들이  
잘 살고 있어?  
너희 들은 나 안보고 싶니?

Hehehh...

